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총력 대응

4차 국가철도망 반영 불확실...이용섭·권영진 시장 23일 국토부 방문
전라선 고속철은 계획에 포함될 듯, 서울~여수 2시간 대 진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라선 고속철'은 이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시와 대구시 등 관련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라선 고속철'은 이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국토부 담당 국장은 조오섭(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 국회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22일 공청회 이전까지는 아무 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으며,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와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23일 국토부 차관 면담 등을 통해 '달빛내륙철도'의 4차 철도망계획 포함'을 제차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4차 철도망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총사업비 4조원을 들여 203.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로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평가(B/C)가 0.483에 머물고 있는 달빛내륙철도를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체계적인 전략 없이 '영호남 상생'이라는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주무 국장과 광주시 실국장이 지난 주에야 첫 만남을 갖는 등 국토부의 무관심 속에서 달빛내륙철도는 4차철도망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인 전주-김천, 서산-울진간 철도 건설도 이번 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작정 '대통령 공약이니 들어달라'며 건의했던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추진 논리로 향후 설 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한편 전라선 고속철은 4차철도망계획 반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선을 고속철로 신설하게 되면 익산-여수 구간이 기존 98분에서 60분으로 단축되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부합하는 서울-여수 2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 혁신” 민주당 대표 후보들 호남 표심에 호소

광주 DJ센터서 합동연설회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 약속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20일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에서 본격적인 표심 잡기 대전에 들어갔다.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제주 첫 합동연설회에서 홍영표·송영길·우원식 후보(기호 순)가 당의 혁신 방안을 두고 열띤 경쟁을 벌이며 호남 표심에 호소했다.

홍 후보는 이날 첫 합동연설회를 통해 "이기는 정당을 넘어 통치에 유능한 정당으로 바꾸겠다"면서 "정당이 국가 운영을 주도하는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해 당과 정부를 함께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치밀한 전략,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협상력은 홍영표 밖에 없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또 "지방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챙기겠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비롯해 광주·전남을 인공지능과 에너지, 문화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송 후보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하면서 때론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고, 민주당 이름만 남기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가 2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당 대표로 출마한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후보가 연설에 앞서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그러면서 "유능한 개혁과 정권 재창출의 길은 송영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송 후보는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광주·전남·전북의 에너지 경제공동체, 전남 의과대학 유치, 전라선 고속철도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호남 표심에 구애했다.

우 후보는 '민생 정권 돌파'를 내세우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절망과 분노가 더는 민주당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하자고만 하면 혁신이 되느냐. 선거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내 탓의 끝이 없다. 무의미한 논쟁의 헛바퀴에서 뛰어내리자"며 단결과 화합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는 이날 광주와 전주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대전·청주에 이어 부산·대구(24일), 춘천·서울(26일)에서 차례로 개최된다.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2일 열린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69기 수습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69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장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전형절차 | 자격 |
|---------|--------------------|-----------------|
| 수습기자 0명 | 1차 서류전형 2차 심층면접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전형방법 | 일정 및 장소 |
|----------|--|
| 지원서접수 | 4월 19(월)~28(일)수 |
| 서류전형 발표 | 4월 30일(금) |
| 면접 | 5월 4일(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5월 7일(금) |
| | 방문 및 우편접수 개별통보 본사 10층 지면 및 개별통보 |

| 제출서류 | |
|--------------------|----------------------|
| 입사지원서 1부 | 양식 당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
| 자기소개서 1부 | A4 1장 이내 |
| 외국어 성적증명서 | TOEIC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
|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
|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성적증명서 포함 |
| 자격증 및 면허증 | 소지자에 한함 |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광주 초대 자치경찰 위원 인선 적절성 논란

위원장에 김태봉 교수 내정

광주시가 초대 자치경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위원 인선을 놓고 공정·적절성 논란이 확산하면서 오는 7월 출범 자체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5면>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초대 자치경찰 위원장에 김태봉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김 명예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광주 YMCA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은 정영팔 KBC 광주방송 보도국장(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신광식 변호사(시 교육감 추천), 오재일 전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오윤수 전 광주경찰청 보안과장(시의회 추천), 송지현 변호사 겸 여성의전화 대표와 문기전 광주 YMCA 사무총장(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정의롭고 용감로운 광주
광주대안민중
T. 미래로!

불법소각, 당신의 생명도 태울 수 있습니다

아직도 논·밭두렁을 태우시나요?
농촌에서의 불법소각,
모든 것을 태우는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